


# 한한국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방문한 세상을 가꾼 장  
'장지혜' 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멘토님에  
대해 자세히 몰랐어요. 그런데, 멘토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아 정말 멋지고 대단하신 분이구나,  
안났으면 후회할 뻔했다.' 라고 생각 했어요.  
그리고, 세계 평화지도 작품을 볼때 보기에 정말  
그림이 멋있고, 섬세 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 지도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더  
대단했어요. 이 지도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 비용등을 생각하면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서 항상 파트너 역할을  
해주신 윤소천  시인님도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 저도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꼭 많이 사랑해 주세요! 화이팅!!

# 사랑

2019년 10월 30일  
장지혜 올림.



- 한한국 멘토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가꾸는 **짱** 임은주라고 해요! 제가 멘토님을 뵈기 전
- 멘토님에 대해서 간단한 조사를 해 보았는데 **수상내역도** 엄청 많으시고, **패션쇼** 등등
- 하신게 많으셔서 놀랐어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멘토님을 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 대단한 일을 하셔서 **존경스러웠어요!** 글씨로 **세계지도**를 만들 생각을 하시다니
- 저도 나중에 **쓰들이** 하지 않는 것을 시도하여 도전하는 **꿈**이 생겼어요! 게다가
- 그 **지도**를 **UN** 어디가도 기증하시고, 우리나라 지도에 **'우리는 하나다'** 라고 **새로운** 지도를
- 북한어다가 기증하시다니 대단하세요! **TV**에서도 **출연**하시고, 매우 유명한 분이시라니
-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쿨하게 **맞은** 사람에게 **임청** 귀한 **대한민국** 지도가
- 그려진 **백지도** 수시고 그것도 **모잘라** 저희 **짱** **멤버** 전체 다 구셔서 너무
- 감사드려요. 다음에 저희가 **채** 만나게 된다면 꼭 **붓** **글씨**를 배우고 싶어요!
- 제가 **캘리그래피** 글씨를 쓰는데 **붓글씨**를 배우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그리고 제가 멘토님께 **싸인**을 너무 받고 싶어서 다른 멤버한테 **싸인**받을 종이를
- 구하고 하고 선생님께 **붓** **펜**을 빌려서 **용기**내서 멘토님께 **싸인**해달라고
- 부탁했는데 **흔쾌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집에가서 가족들한테 자랑했는데
- 저희 아버지가 멘토님을 **TV**에서 본적 있으시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 기사를 통해서 멘토님께 더 관심을 가질게요!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광주광역시 대표 임은주 올림



# 한한국 멘토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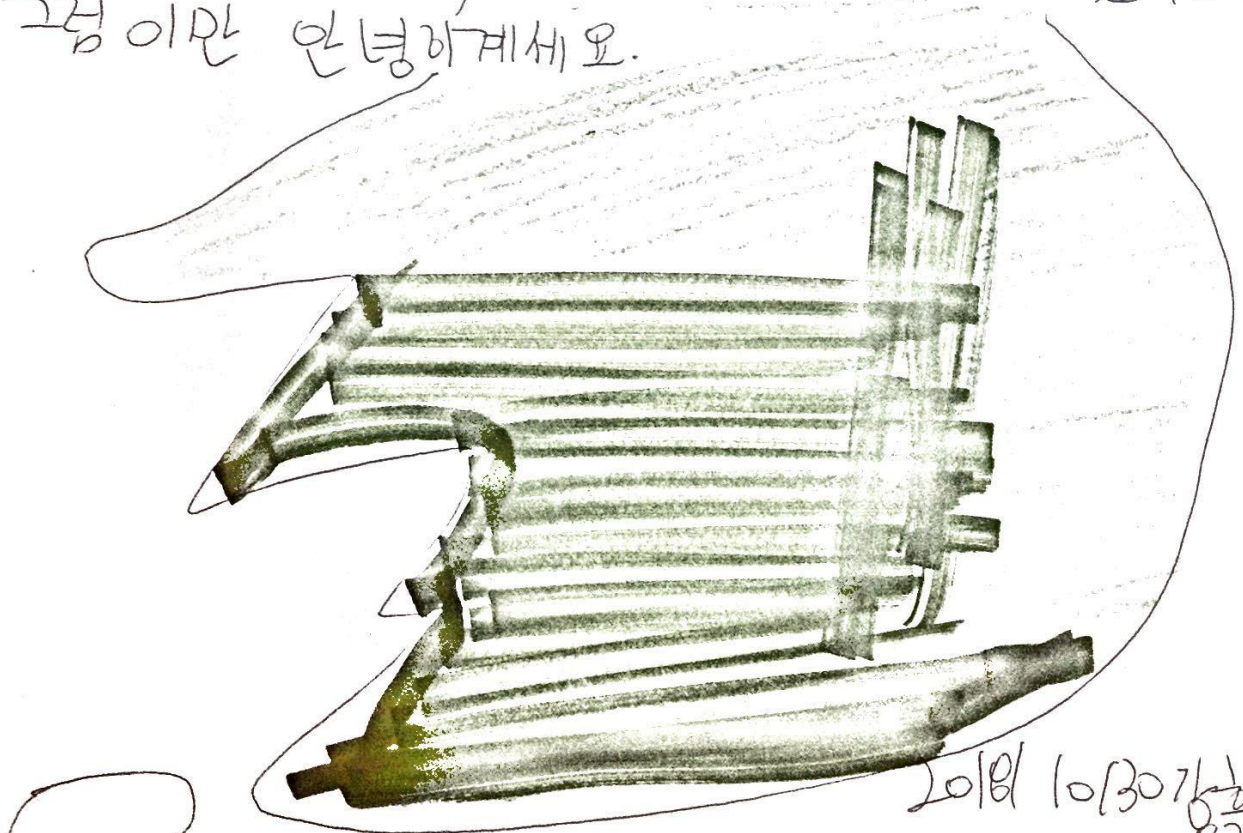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멘토님 저는 전향을 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공동대표인 양다현입니다. 한글로 세계 평화 지도를 그리신 분을 보고 아, 작업실을 가는 줄 알았는데 집을 가는 거였어요. 집을 들어 갔는데 멘토님의 노력과 정성이 깃든 평화 지도를 보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질문 했던 것처럼 저는 인내심도 없고 참고, 미루는 것을 좋아해서 그 습관을 고치고 싶어 하는데 멘토님은 저것을 만드는데 어떠한 심오한 작업을 하셨을까라는 생각과 꼭 내가 지도를 그리지는 않더라도 저 인내심을 닦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공이 잡지부 기자한테 그것을 물어보지 못해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저희 장이 조금 익숙한 면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배지를 자판을 위해 제작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다음에도 꼭 만났으면 하는데  다시 만나요 조만간 <저희 멘토님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당> 

2018. 10. 30

양다현 올림

한화국멘토링게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은 가꾸는 장 [6]희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귀송스튜디오 이쁜 여행때 개인 자재  
이 생겨서 못가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멘토  
님이 뉴스에 많이 나와서 멘토님을 신기하게 생각  
하였습니다. 멘토링이 크자를 새서 지도를 만드는 게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저도 갖고 싶은 저도 뉴스에  
나오고 멘토님만 만나서 잊었는 더 정만 아깝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계세요.



2019 10/30 [6]희관  
문김.

한 한국

멘토님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바꾸는 짱' 멤버중 하나인 강초은 이라고 합니다.

전에 멘토님 집을 방문하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멘토님은 어떻게 그림들을 참고 계속 하게 되셨을까?' '정말 힘드셨겠다.' 등등

ㅎㅎ 아! 그리고 저희가 방문한 뒤 2~3일 뒤 쯤에 기사가 진짜

있더라고요! 정말 정말 신기 했어요 멘토님 같은 분이 저희?

한국에 계시다는게 자랑스럽고! 저 또한 멘토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해극심 = 자랑심 같은 마음이 피어올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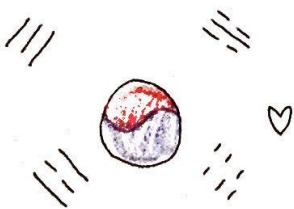
우리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멘토님을 계속 생각 하고 있을게요!

정말 살면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아요.. ㅎㅎ

그럼 편지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 (귀백)

2018. 10. 31. 수요일

멘토님을 존경하는 '세상을 바꾸는 짱' 강초은



\* 제가 글씨가 비뚤어지고 필체가 너무 구려돼 죄송합니다!

한 한국 멘토님께 ♡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가꾸는 짱 박은우라고  
합니다. ♡

저는 멘토님을 보다는 말을 듣고 좀 많이 설레어요.  
그리고 저는 한 한국 멘토님의 그림처럼 큰 그림을  
직접보는 것은 처음이였어요. 사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따라그리는 것 예를 들어 풍경화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멘토님 덕분에  
통일 되어 비행기가 아닌 기차를 타고 러시아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멘토님 같은  
분들은 만수무강하시고 아프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림 언제나 지켜보면서 응원  
할게요. ♡



2018.10/31 수

언제나 응원하는

박은우 올림 ♡

TO. 한한국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주 토요일에 멘토님을 뵈던 무안짱 김진호라고 합니다. 이름으로는 잘 못아시겠죠? 바로 멘토님 앞에 있는 파란 점퍼를 입고 있던 아이입니다. 저는 이번에 멘토님을 뵈면서 정말 많은것을 깨달았습니다. 멘토님께서 12시간 동안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힘든 자세로 그렇게 열심히 만든다는 것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멘토님께서 저희에게 희망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지금까지 뵈던 멘토님들 중에는 다 글로 해주셨는데 멘토님께서만 새롭게 그것도 붓으로 멋있게 해주셔서 신기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한한국 멘토님을 정말 존경하겠습니다. 또, 배지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아주 잘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멘토님, 앞으로도 작품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저는 멘토님 작품을 볼 때마다 정말 감동받을 것입니다. 또,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2018. 10. 31. (수)

-진호 올림-

한 한국 작가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일전 한 한국 멘토님의 강의를 듣고 온

세상을 가꾸는 짜장 이동하입니다 멘토님의

그림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그림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올림픽이나 다른 큰무대를 나갈때 멘토님의

한국 지도를 저희 나라 국기 쓰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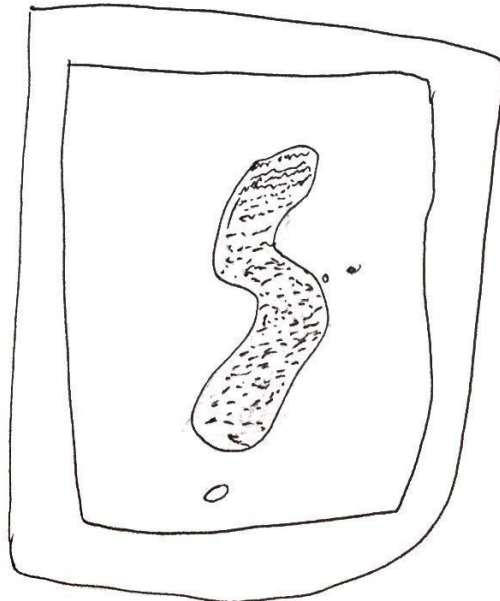
생각 합니다 멘토님의 그림은 아주 멋있어요

아주 큰 그림도 힘들게 만드니 아주 고생을 많이

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멘토님처럼 색다르고

신기한 것을 직업으로 하게요 멘토님은 정말 대단 합니다

2018. 10. 29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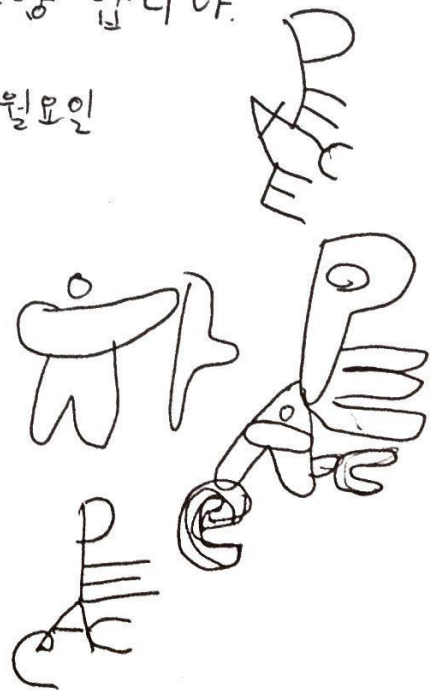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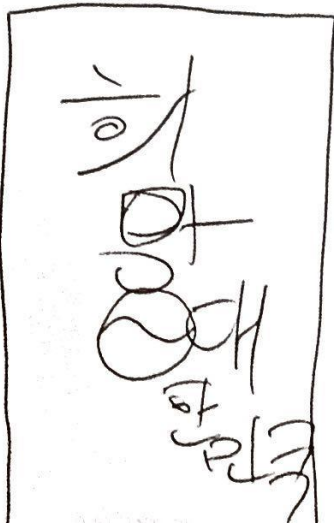
TO. 한한국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한국작자님을 만난 송호진 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한국작가님을 존경합니다. 4cm나 되는것도  
수지 않고 종이에 무릎은 꿇고 쓰시고 12시간 동안  
그 자세 그대로 있어서 존경합니다. 멘토님 덕에  
교훈을 얻었고 이제 어떻게 살지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짱 여행중에 이렇게 친근해 진적이  
없습니다. 알아도 보고, 사진도 찍고 영광입니다.

작가님께서 말해주셨습니다. "꼭 유명한 직업에서  
경쟁하지 말고, 당신이 직업을 새로 만드는데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멘토님 존경 하고 사랑 합니다.  
앞으로 한번 만나고 싶네요 2018.10.29. 월요일



2018, 10, 29 월요일

안녕하세요. 한한국 작자님! 저는 세상을 바꾸는 짱에서 무한짱 멤버

양승희 입니다! 작가님께서 정말 힘드시게 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의 한지에

한글을 알리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한 것이 좋아요? 그래서 생각한건데

컴퓨터로 따고 (폰) 등으로 그려서 컴퓨터로 디지털 쪽으로 하시든 건

어떠신가요? 음... 폰으로 하는 것처럼 많이 아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폰을 벗어내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꽤 괜찮긴 하긴.


하지만 전 그냥 제안하는 것일 뿐!!! 힘드시겠지만 전 그냥 하시는데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서아 안이해서 죄송해요.ㅠ 별로 타워

보이네요 혹후(???) 정말 멋집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응원합니다!!!

희망 대한민국 

화이팅 

- 짱 멤버 승희

To 한한북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 저는 세상을 가꾸는 짱 해새런 입니다 .

얼마전 , 멘토님을 보냈는데요 ! 멘토님께서

좋은 시간을 주셨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명깊은 시간이었어요 !!

초심을 잃지말자는 멘토님의 말씀이 너무 인상깊었어요 ~!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또 뵙고 싶네요 !! 멘토님께서 힘있게 만드신 작품이

지금 은혜를 갚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신비하고 멋져요 ♪

너무 감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

2018 / 10 / 29 / 월

From 새런 올림



한한북 멘토님

힘내세요 ♪

PEACE ♡

- TO 한 한국 멘토님께 -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가꾸는 재(중 무안짱)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멘토님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데 기사보니 힘든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거 같아요.

멘토님 아내분을 참 잘 만난 거 같아요.

그리고 그대(2018/10/29) 생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멘토님께서 하신 말 중 처음에 질문하기 어렵고 하다보면 뒤워진다는 점이 맞는 거 같아요. 거도 그때 질문 할 때나 지금이 편지를 쓰거나 ~~이런~~ 처음에는 뭘 쓸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쓰다보면 살게 많아 지는 것 같아요?

늦어지만 지금이라도 질문을 한다면 글을 쓰는 것은 다른 걸 할 수 있었는데 오빠 꼭 세게 포경화 지도를 하게 되었나와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 무안짱 김기현 올림 -



- 한한국 멘토님께 -

안녕하세요! 무안짱 박성하 입니다.

저번에 멘토님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많은  
지식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입체적으로  
그림을 표현해 보시는것은 어떠시나요?

평화를 위해서 멋진일을 하시는것을 보고  
제가 한번더 저의 진로에 대해 멘토님이  
말하신데로 "단순하게" 생각해보았습니다! 😊

그리고 아침마다 제이름의 가치도 생각을 하구요!  
제가 멘토님을 만난후 한층더 , 높아지고 성장해전  
기별입니다 .. 그리고 항상 무릎 아파남시게 그림을  
몇시간동안 집중을 하셔서 하시는것이 정말신기합니다

저는 아예 상상하지 못하는것 입니다 TT

매일 매일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ㅎㅎㅎ

한번더 뵙고싶습니다 ♪ ! 저의 성장을 도와주시는것  
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

T. 한한국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가꾸는 가장 바지영  
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포켓을 쓰는  
이유는 멘토님께 너무 감사드려서 이에요.. ♡  
버드까지 베풀어 주신 분은 작가님이 처음이라  
깜짝놀라고 감동 받았어요.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아. 정말 정성이 느껴진다" 라는 것은  
깨닫고, 정말 힘들게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멘토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질문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덕분에 덕분에... 제가 만약 멘토님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저는 포기했었을  
거예요 멘토님 정말 존경드립니다... ♡



파브 ~

포켓화 ♡

2018년 10월 30일

- 지영울림 -

한 한국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멘토님. 저는 10월 2일 토요일에 방문한 시생활 가족은  
자신의 대표 임자형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형을 잘 못하여 자장 임자들이 라고 싶은 말씀, 멘토님께서  
하시고 받으신 말씀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감사 라바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상외로  
못해 환대에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에게 빛기도 주시고 영성도  
보여주시면서 저희에게 관심을 표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제가 무언을 해야 할지 감회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을 하고 있는지, 무언을 시작했는지 에 대한 것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 초심을 잃었습니다.

항상 조금씩이고 조금씩이 그것들을 떠나서라고 노력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그것이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멘토님께서 ~~변~~ 만의 작품을 보고 그 작품에 실어 받은 노력을  
드려서 보고 아까 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생각과 행동은 경험으로 살아주고 새로운 초심을 찾아서  
다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19. 10. 30 화요일